

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장을 받기 보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판하기에 앞서 모든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찾으려는 냉철함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닌 모두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지금, 아니 앞으로 우리 양계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정책이나 자금보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경영자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양계**

불황기때 바뀐 계약서 개선되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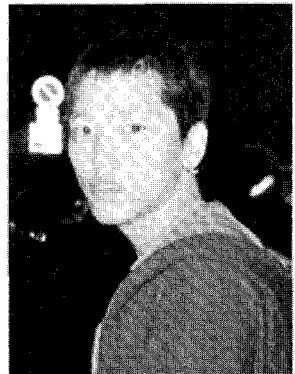
권 기 창 대성농장

원래 나는 도시에서 자라 농촌에 대한 동경심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농장을 경영하시게 되면서 점차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중학교때부터 휴일엔 아버지 일을 돕기도 했고 일이 없더라도 쉬는날엔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도 물론 자연계를 택하였고 대학교도 축산계통의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축산계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축산계열의 여러대학을 알아보던 중 축산업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알게되었고, 3년간의 수학 끝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장을 경영한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 양계업에 발을 들여 놓을 당시 양계업계는 최고의 불황기였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수입육 등으로 인해 육계는 병아리 값도

안되는 시세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 병아리 입추 회전이 늦어졌고 병아리가 입추 되었다 하더라도 낮아진 수수료로 인해 전과 같은 소득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육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계열화 위탁 사육을 하기 때문에 불황기 동안 낮아진 수수료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은 직접적인 소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몇 년간의 불황기를 지나 지난 여름부터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다들 호황기라 얘기 하지만 불황기때 바뀐 위탁 계약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회사마다 사



료요구율,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농가와 협의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여러면에서 농가에 불리한 것이 많다. 아직 육계업의 새내기인 나로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내가 육계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지만 내가 미래로 결정 해놓은 육계업을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손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10년을 계획으로 삼고 먼저 40,000수의 규모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60,000수 규모를 확보, 이후 2013년 까지 100,000수의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른 축산분야들이 앞으로 '양계는 전망이 없다. 언젠가 무너질 분야다' 라고 얘기들 하지만 모든건 내가 하기 달렸다 생각한다. 지금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가고 사양기술을 익혀 간다면 그 어느 직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전망있고 발전적이라 생각한다. **양계**

병아리 품질은 양계업의 근간

김 학 주 인주부회장 대표

양계업에 몸을 담은 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었다.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 양계업이란 전혀 생소한 분야로 오게 되니 낯선 업무, 낯선 사람들 뿐..

밖에서 볼 때와는 흐름이 달라 아직까지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넣고 있지만 발로 뛰면서 깨달아야 할 시간이 그간 생활해온 시간보다 곱절은 넘을 것 같아 긴장되고 있다.

양계업 경력은 햇병아리이지만 나름대로 지난 2004년을 돌아본다면 참으로 다사다난 했

던 한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억제 노력, 그후 양계업 관련인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얻어낸 6개월후의 청정국 지위 획득, 10년 만에 찾아온 기

